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인적자원연구실	직 위	전문연구원	성 명	김은경
출장기간	당 초	2인 7일	출장지	당 초	영국, 런던	
	변 경	1인 8일		변 경	영국, 런던	
출장목적	-영국 정당의 매니페스토 적용 사례조사 -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 경향 및 방법조사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3,770 천원)					
	주최측 부담 (없음)					
주최기관	-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자유민주당 Goldsmith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Essex		Marian Sladowsky Dr. Richard Grayson prof. Judith Bara prof. Ian Budge prof. Vicky Randall		출장목적과 동일함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7. .

출 장 복 명 자 : 김 은 경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공직선거의 여성공약 평가 및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영국 매니페스토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보고자 : 김은경 인적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1. 회의(또는 연수과정) 명 : 영국 매니페스토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2 회의(또는 연수과정) 배경 및 목적

가. 영국 정당의 매니페스토 운영사례

나.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집단의 정당공약 평가 사례 및 연구동향 파악

3. 참가자 규모 : 김은경 인적자원연구실 전문연구원 (예산비목: 12-1210-212-B01)

4. 회의일정

가. 기간 및 장소 : 2007. 7. 8. - 2007. 7. 15. (6박 8일), 영국(런던).

나. 일정

날짜	일정	방문기관 및 면담자
7. 8.(일)	서울출발, 영국도착	
7. 9.(월)	런던	자유민주당 방문 (14:00) - Marian Sladowsky, 보건분야 정책담당
7. 10.(화)	런던 근교(New Cross)	Dr. Richard Grayson (11:00) Goldsmith college, (r.grayson@gold.ac.uk) (전 자유민주당 정책공약 담당)
7. 11.(수)	런던	prof. Judith Bara, (13:00) University of London (j.l.bara@qmul.ac.uk)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 그룹)
7. 12.(목)	런던	prof. Ian Budge, (14:00) University of Essex, (lindad@essex.ac.uk)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 그룹)
7. 13.(금)	런던	prof. Vicky Randall, (16:00) University of Essex, (vicky@essex.ac.uk)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 그룹)
7. 14.-15.(토.일)	영국출발, 서울도착	

5. 주요내용 (방문 및 면담 인사 중심으로)

가.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방문

1) 면담자

○ Marian Sladowsky : 보건분야 정책담당 (07 980 449145)

- 2) 면담내용 : 자유민주당 공약개발 사례
(내용은 별첨자료1 참고)

나. Gloldsmith College 방문

- 1) 면담자
○ Dr. Richard Grayson : 정치학과 교수, (r.grayson@gold.ac.uk)

- 2) 면담내용 : 자유민주당 공약개발 사례 (별첨자료1 참고)

다. University of London 방문

- 1) 면담자
○ Judith Bara : 정치학과 교수 (j.l.bara@qmul.ac.uk)
+44 (0)20 7882 5069

- 2) 면담내용 :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그룹의 공약평가 사례와 연구방향
(내용은 별첨자료2 참고)

라. University of Essex 교수 (런던 시내에서 만남)

- 1) 면담자
○ Ian Budge : 정치학과 교수 (lindad@essex.ac.uk)

- 2) 면담내용 :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그룹의 공약평가 사례와 연구방향
(내용은 별첨자료3 참고)

마. University of Essex 교수 (런던 시내에서 만남)

- 1) 면담자
○ Vicky Randall : 정부학과 교수
01206 872508, (vicky@essex.ac.uk)

- 2) 면담내용 :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그룹의 공약평가 사례와 연구방향
(내용은 별첨자료2 참고)

6. 참가자 역할

가. 기관 방문 및 인터뷰

나. 수집 자료 번역 및 정리

7. 평가 및 제언

가.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출발하여 급속하게 정당차원까지 전달된 정책공약 운동임. 영국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시한지 약 70년이 넘는 가운데, 매니페스토 운동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당공약의 보편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나.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약평가 부분에 있어서, 영국은 정당 공약, 즉 매니페스토에 대한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한국의 평가틀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방법과 차이가 있었음. 영국 매니페스토 연구그룹에서는 정당간 이념성향의 추이를 분석하는 방향에서 매니페스토의 내용분석을 과거 30년전 선거공약부터 분석하고 있었음.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SMART 지표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았음.

다. 향후 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에 있어서 평가틀과 평가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방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내용분석에 대한 방법론상의 차이 일수는 있으나, 한국의 연구방향이 지나치게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정당 전체의 이념지향의 분포에 소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라. 보고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매니페스토의 시초로 알려지고 있는 바, 영국의 운영실제와 연구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영국사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수집자료 목록

가. Liberal Democrat Manifesto - Freedom, Justice, Honesty.(2001)

나. The 2005 Manifestos (분석자료)

다. A Question of Trust: Implementing Party Manifesto

라. Mapping Policy Preferences: Estimates for Parties, Electors, and Governments 1945~1998

<별첨자료>

별첨자료1

2001 Liberal Democrat Manifesto

※ 헤드라인은 각 면의 헤드라인을, 주요공약사항은 헤드라인 바로 아래에서 볼록체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세부 공약 사항은 작은 글씨로 인쇄된 세부 내용들을 요약함. 4면, 5면, 10면과 15면을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은 주요 공약 사항 수준에서 요약함.

1면 : 총론

구체적인 공약 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체 공약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1면 상단에 Health, Education, Fairness의 세 가지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음.

자유(freedom), 정의(justice), 정직(honesty)의 세 가지 단어로 당의 공약을 설명

2면, 3면 : Health

헤드라인

- 더 많은 스태프를 고용해서 더 빠른 NHS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More staff, faster NHS treatment)

주요 공약 사항

- 대기시간을 줄이고(cutting waiting times),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keeping people healthy), 환자를 돌보고(caring for patients), NHS의 질을 향상(Improving quality)시키는 것이 목적임.
-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7,500의 간호사와, 4,600명의 의사, 그리고 10,250명의 의학 관련 전문가들을 더 고용할 것,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NHS 스태프의 임금을 매해 평균 £1000인상하여 더 많은 스태프를 고용할 것, 추가로 10,000개의 침대를 제공할 것.
-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캐닝 장치(scanning equipment)에 투자를 하고, 치과와 안과 진료에 드는 비용을 폐지할 것
-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노인과 장기 입원 환자들이 지불하는 장기 개인 관리 비용(long-term personal care costs)의 문제를 정부가 해당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해결할 것
- NHS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NSFs(National Service Frameworks)가 다루는 범위를 확대할 것, 지역 사

회의 책임을 강조할 것, 환자들에게 독립적 중재자(independent advocates)에 대한 접근권을 줄 것, 무과실책임보상(no-fault compensation)을 도입할 것, 지역 NHS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환자들이 대안적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 남녀공동병실(mixed wards)을 폐지할 것, 나이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

© 2005년 공약 헤드라인 “환자를 먼저(Putting patients first)”

-2001년 공약과 전반적으로 유사함. 서비스 속도 개선을 중심으로 치과 안과 진료의 질적 개선, 의료서비스 내에서 환자들의 통제권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4면, 5면 : Education and Employment

헤드라인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의 투자

(Investment in education - for all our futures)

주요 공약 사항

- 5-11세의 아이들을 위한 학급 규모를 평균 25명으로 줄일 것
- 11-16세 아이들을 위한 학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5000명의 중등 교사를 채용할 것
- 학교의 도서와 장비를 위한 기금을 증대시킬 것
- 학교의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들에 대한 간섭을 줄일 것
- 대학 수업료를 폐지할 것

세부 공약 사항

• Every child matters: class sizes and teachers

다음을 위해 약 £1 billion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출할 것임

- 5-11세의 아이들의 위한 학급 규모를 평균 25명으로 줄일 것임.
- 5000명의 추가적인 중등교사 자리를 마련할 것임. 이는 학생 대 교사 비율을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임. 또한 부족한 과목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것임
- 유치원(infant school)의 아이들에 대한 성인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5-7세 아동 25명 당 한명의 학급 보조원(classroom assistant)을 보장할 것. 5-7세 아동을 위한 25,000명의 학급 보조원을 포함하여, 40,000의 추가 학급 보조원을 제공할 것
- 초등교사를 위한 유급 준비 시간제(paid preparation hours)를 도입 할 것. 추가 posts를 마련함으로써 초등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유급 시간을 일주일

에 2시간 허락할 수 있을 것

- 교사 채용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의 훈련 보조금을 대체할 풀 트레이닝 임금(full training salary)을 훈련 교사들에게 지불할 것
- Teacher Training Agency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General Teaching Council에 이양하여 관료(적 절차)를 축소할 것
- 교사들을 지원하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를 개선할 것. 최근에 설립된 e-learning foundations의 경험을 이용하여, 컴퓨터 장비와 서비스를 대여해주는 Educational charitable trusts를 운영할 것. 또한 새로운 과학 장비의 사용에 관한 훈련에 투자할 것임
-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을 폐지할 것. 이를 대신하여 교사들의 임금을 교수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험 있는 교사들의 유치(retention)를 증진시키는 직업적인 발전(professional development)과 연결할 것임. 교사들은 일련의 고용 중의 훈련 과정(in-service training courses)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매년 통과할 때마다 임금 인상을 얻을 수 있을 것
- 과학과 현대 언어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의 중등 학급의 학급 규모를 최대 평균 18명으로 제한할 것.

• **Every child matters: books and equipment**

- 현재 지출되는 수준 이상으로 도서와 장비를 위한 기금을 증진시킬 것. 이를 위해 매년 초등학교마다 평균 £1250을, 중등학교마다 평균 £4250을 제공할 것. 학교는 이 자금을 책을 사거나 혹은 CD-ROMs와 같은 ICT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지출할 수 있음.
- ICT와 과학 장비, 구입 및 보수 그리고 교사들의 ICT훈련을 위한 기금을 증대시킬 것

• **Widening choice, cutting bureaucracy**

- National Curriculum을 덜 엄격한 Minimum Curriculum으로 대체할 것.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균형잡힌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음악 수업을 위한 기금을 증대할 것.
- 모든 국가적 학업 목표(national school targets)를 법정 학업 요건(statutory requirement for schools)으로 대체할 것임. 이는 명확한 개인적 목표와 향상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개별적 교육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이러한 계획의 질은 국가적 가치 부과 기준(national value-added criteria)을 통해 보장할 것.
- 교육을 개선하고, 학년(standards)을 보장하고 특수 교육 수요(Special Educational Needs)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구(Local Education

Authorities;LEA)의 핵심적 역할을 보존할 것임

- Whitehall의 모든 지침들을 매년 재검토할 것.
 - 모든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것임. 현재의 성적일람표(league table)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아이의 처음 성적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학교에서 매해 부가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 이는 학교의 수행(performing)을 보여줄 것임.
 - 어린 아이들의 시험을 줄일 것. 높은 연령대의 학생들에 대한 시험은 유지하지만, 7살 아이들에 대한 시험(SATs)은 폐지할 것임.
 - 학교 감사 체계(school inspection system)를 개혁할 것임.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현재 교육기준청(Ofsted)의 접근은 학교를 돕기보다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음. 우리는 감사관이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교육기준청이 학교의 자기 평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또한, 교육기준청 내에 각각의 다양한 영역에 합당한 부서를 설립하고 그 각각이 그 주제와 연관된 기술적 전문성을 지닌 사람에 의해 지도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함.
- 이외 장기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중간 수준 근거한 최소 교육 용자 자격(minimum education funding entitlement)을 통하여 학생당 용자 상의 불일치를 줄여나갈 것
 - 국립과 사립학교 간 조화를 도모할 것. 이를 위해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하여금 그들의 시설을 국립학교와 공유하는 것을 장려할 것임. 우리는 사립 학교에게 최소한의 커리큘럼 권한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또한 모든 학교에 charitable status를 확대하고, 수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유지할 것임.

• Early years education

- 어린 아이들에게 보육원에서, 취학 전 놀이그룹에서 혹은 집에서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린이 발달 파트너십(early years development partnership)과 함께 일할 1000명의 어린이 전문가(early years specialists)를 제공할 것임.
- 보육 교사들에게 부가적인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세울 것임.
- 보육학교들의 실외 시설을 위한 자금을 증대시킬 것임. 궁극적으로 모든 보육 학교들은 아이들이 실외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지니고 있어야 함.
- 아이들의 초기 발달이 학교와 가족 사이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집과 학교의 결합을 강화시킬 것임.
- 어린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충분한 질을 지니고 있고, 지적, 감성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것. 그리고 놀이가 이

과정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실히 할 것임.

- **higher education**

- 영국 전역의 대학교 수업료를 폐지할 것임.
- 학생 생활비(student maintenance)를 재편성할 것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grants)과 여름휴가 기간 동안의 보조금(benefits)에 대한 접근권을 부활시키고, 학생 대부금이 상환되는 임금의 물가상승분지급협약(salary threshold)을 우선적으로 매해 £10,000에서 £13,000으로 올릴 것.
- 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세배로 확충함으로써 과소대표되는 집단(under-representative groups)을 위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과소대표되는 학생, 25세 이상의 학생(mature students), 파트 타임 학생들의 유치를 추진할 것임. 각 대학에 입학 시에는 1/3, 졸업 시에는 2/3을 지불 할 것.
- 수준 높은 직원을 유인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임금을 향상시킬 것임.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대학 내의 남성과 여성 간 수용할 수 없는 임금 차를 없애고, 임시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이 직면하는 유사한 불평등의 문제 역시 다룰 것(tackle)이다.
- ‘자원의 단위(unit of resource)’에 대한 어떠한 감축시도에도 맞서서 대학들이 적절하게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는 대학이 학생 당 받게 되는 돈을 말한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자원의 단위를 증대시키는 것.

- **Furt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 모든 성인들에게 공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임. 우리는 어떤 성인이든 Level 2정도의 자격(5 GCSEs at grade A to C, an intermediate GNVQ 혹은 a Foundation Modern Apprenticeship에 대등한 수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용자를 제공할 것. 또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성인들이 Level 3까지의 수준(2 Levels at grade A to E, an Advanced GNVQ 또는 an Advanced Modern Apprenticeship에 대등한 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할 것. 장기적인 목표는 이 권리를 모든 성인들에게 확대하는 것. 이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수입에 따라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 용자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용자와 자격 체계(funding and qualification systems)를 단순화 할 것임. 이를 위해 Learning and Skills Council과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를 단일한 Learning Council for England로 통합할 것임. 또한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정에서 학점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을 개혁할 것임.

장기적인 목표는

- 모든 시민들에게 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제공하는 것임. 이러한 평생 교육적 접근(approach to life-long learning)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동안 그 사람이 16세 이후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 수업료는 지불될 것이며, 생활비 역시 학생 용자로 해결할 수 있음. 이는 예를 들어 파트 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여성,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

• Employment and training

-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중간 규모의 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을 도입할 것임.
- National Training Organisation을 강화할 것임.
- 16-24세에게 유급 study leave의 권한을 부여할 것임.
- New Deal을 Flexible Guarantee로 대체할 것임. 이는 통합된 Benefits and Jobs Agency에 등록된 모든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것
- 실업률이 많은 지역을 구제할 것.

GREEN ACTION

- Learning for a green future
: 지역 단위의 환경 기획을 장려하고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증대시킬 것. 이를 National Recycling Programme과 연결하고 있음
- Healthy and safe journey to school
: 부모들이 자가용 보다는 아이들에게 도보와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통학길을 보장할 것.
- Greener school buildings
: 학교건물에 대한 환경 평가를 포함하는 'Schools 2010'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

6면, 7면 : Law and Order

헤드라인

범죄를 줄이자 - 더 많은 자원은 모두를 위한 정의
(cutting crime - more resources, Justice for all)

주요 공약 사항

600명의 추가적인 경찰력을 채용할 것임.

2000명의 파트 타임 지역 경찰력을 마련할 것임

새로운 Community Safety Force와 지원역할을 하게 될 퇴임한 경찰력을 활용하여 전방의 치안(front-line police)을 강화할 것임

수감자들에게 그들의 석방과 관련하여 준법적 삶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줄일 것임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부여할 것.

※ 세부공약을 치안(Police), 교도소(Prisons), 형사법체계(The criminal Justice system), 범죄의 원인(Tackling the causes of crime) 이상의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8면, 9면 : Transport

헤드라인

믿음직하고 안전한 수송기관
(Reliable and safe transport)

주요 공약 사항

안전하고, 믿음직하며 수용력 있는(affordable) 통합된 운송체계를 세울 것이며, 특히, 오염과 (교통)혼잡의 문제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음.

연금생활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출퇴근 이외의 시간(off-peak)의 지역 버스비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는 19세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전 시간 교통비의 반절을 제공할 것임.

저공해 자동차(low-polluting vehicles)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세금을 면제해 줄 것임
철도에 대한 공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

※ 세부공약을 (교통)혼잡과 오염을 줄이기(Reducing Congestion and pollution), 공공 운송 수단을 개선하기(Improving public transport), 운송수단에 대한 규제와 이행을 개선하기(Improving transport regulation and performance)¹⁾, 철도와 런던 지하철(Railways and the London Underground), 도로(Roads), 항공(Aviation) 등의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0면 : Pensions, Wages and Benefits

헤드라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1) 사적 기업들에 의해 대부분의 운송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경쟁과 투자 그리고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이러한 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Freedom from poverty)

주요 공약 사항

특히, 75세 이상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을 부양할 것임

심각한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겨울철 난방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을 지원할 것임

가난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낮은 급여를 받는 이들을 지원할 것임

매년 최저 임금을 갱신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임

장기적인 수입 지원책으로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여 어린이 빈곤을 방지할 것임

세부 공약 사항

• Pensions

-독신 연금생활자를 위해 일주일에 £5씩, 75세 이상을 위해 £10씩, 80세 이상을 위해 £15씩 연금을 인상할 것. 커플들은 £8, £18, £28의 인상분을 각각 받을 것임.

-매해 £100,000 이상의 수입에 대한 50p의 최고세율(top tax rate)을 부과함으로써 연금의 증가액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임.

-Independent Pensions Authority를 설립할 것임

-개인연금(private pensions)을 받는 이들의 지위를 강화할 것임.

-새로운 Owned Second Pension Account를 도입할 것임. 이는 미래 세대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시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 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두 번째 연금(second pension)을 가지게 하는 것임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것.

• Low pay and benefits

-Low Pay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서 매해 국가 최저임금을 갱신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것임.

-일 년 이상 수입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매해 추가적인 £200를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의 빈곤을 막을 것임.

-16-17세의 보조금에 대한 권한을 부활시키고, 25세 이하를 위한 주택수당(housing benefit)을 증대시켜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노숙자를 줄여나갈 것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늘려나갈 것임.

-주택수당 행정체계(Housing Benefit administration)를 단순화하고, 수당 사기(benefit fraud)의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임.

-규제자에게 더 넓은 세율상의 선택안을 제공하게 함으로서 가스, 수도, 그리고 전기세

- 에서의 차별을 종식시킬 것이다.
- 수입지원을 받는 이들에게 cold weather payments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 장기적으로
-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
 - 최저 수입 규준의 마련
 - Social Fund의 효율 증대

GREEN ACTION

에너지 빈곤을 뿌리 뽑자

- ◎ 2005년 공약의 헤드라인은 “공정한 연금과 국민보험(Fair pensions and benefits)”
- 2001년의 공약과 비교하였을 때, 75세 이상의 연금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사적·공적 연금제도의 조화 등의 공약을 계승하고 있음. 추가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점은
- : Citizen's pension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포기한 여성들이 국민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75세 이상의 여성 연금자들에게 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산후 수당을 처음 6개월 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Help working parents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붕괴하기 시작한 Child Support Agency의 기능과 권한을 Inland Revenue에 이양하여 부모들의 과도한 유지비 지출을 막을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Scrap the child support agency)

11면 : Innovation in Culture, Arts and Sports

헤드라인

모두를 위한 기회

(Opportunities for everyone)

주요 공약 사항

- 학교 교육의 핵심에 예술을 위치시킬 것임.
- 지역 스포츠 계획을 지원 할 것임.
- 문화, 예술과 스포츠의 다양성을 촉진시킬 것임.

※ 세부공약을 예술과 문화(Arts and culture), 방송(Broadcasting), 스포츠(Sport)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2면, 13면 Business, Innovation & Consumers

헤드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할 것
(Protecting Consumers and backing business)

주요 공약 사항

사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임
독점 권력에 대항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임
개혁과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것임

※ 세부공약을 기업(business), 소비자(Consumer), 고용인의 권리(Employees' rights)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4면 : Reforming Politics

헤드라인

모든 표를 계산에 넣을 수 있도록
(Making every vote count)

주요 공약 사항

모든 표들을 계산에 넣을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의회)를 위한 투표 체계를 개혁할 것임
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의회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할 것임.
영국의 민족과 지방(the nations and regions of Britain) 그리고 지역 당국에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할 것임

※ 세부공약은 위 주요 공약 사항 각각이 속하는 세 가지 주제(Voting, Westminster, The nations and regions and local government)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음

15면 : Civil Liberties

헤드라인

모든 사람이 자유롭도록
(Setting all people free)

주요 공약 사항

모든 종류의 차별을 비합법화하는 Equality Act를 통과시킬 것임.

지원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망명 체계(asylum system)을 개혁할 것임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진정으로 열린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자유법안(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을 확대할 것임

세부 공약 사항

• Discrimination

-Equality Act로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강화시킬 것임.

-현재의 유럽의 반차별 법(Europe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을 지원할 것임

-파트너십이라는 시민 등재 체계를 설립하는 것. 이는 안정된 개인적 관계를 등재하기를 원하는 두 명의 성인에게 최근친(next-of-kin)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해줄 수 있다. 최근친은 현재에는 오직 결혼한 커플에게만 가능한 관계이다.

• Immigration and asylum

-망명 지원자들 공정하고 신속하게 도와줌으로서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을 보호할 것임.

-이민법의 차별조항을 없앨 것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이민법을 개정할 것임

•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privacy

-정보자유법안을 강화할 것임. 이는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제거하고 열린 그리고 책임있는 정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사적인 것(privacy)을 보호하는 것. 현재 영국법(UK law)와 통합된 유럽의 인권에 관한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에 따라 사적인 것을 보호할 것임

-보안 서비스를 의회의 통제 하에 둘 것임

GREEN ACTION

-환경 지식을 증대할 것 : 환경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기

-시위자 보호 : 환경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이슈에 대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

-동물 보호

헤드라인

당신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행동
(Action for your local community)

주요 공약 사항

- 지역 서비스를 보호하고, 지역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
 - 농업과 어업분야의 농촌 고용주를 지원할 것
 -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원스탑 개혁 인가 시스템(one-stop regeneration grant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궁핍한 지역을 부흥시킬 것
 - 녹지대보다 상업지대의 개발자에게 유인동기를 창출할 것
- ※ 세부 공약은 강한 지역 공동체 건설, 농업과 어업에 대한 지원, 지역 경제 지원, 생활환경개선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설명되고 있음

© 2005년 공약의 헤드라인 “강한 지역 공동체(Strong local communities)”

- 2001년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자율성 강조, 2001년과 달리 문화·예술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Local Community파트에 통합시켰음

18면 : Britain's role in the European Union

헤드라인

유럽 내 당신의 발언
(Your say in Europe)

주요 공약 사항

- 중동부 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문제를 포함하여 EU의 역할을 확장할 것
- EU의 제도를 더욱 개방되어 있는, 민주주의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할 것
- EU의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기 위해 유럽을 위한 헌법적 결정에 관한 동의에 도달할 것
- 이 지역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의 자유 민주당의 협력자와 협력할 것

19면 : Defence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헤드라인

국제적
(International)

주요 공약 사항

- 민주주의, 인권과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에 근거한 외교 정책을 촉진할 것
- 지구적 안보, 무역과 환경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
- 동맹국들과 더욱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영국의 국방 능력의 침식을 방지할 것

※ 세부공약을 외교정책, 국제 안보, 국방, 무역, 원조와 국제적 발전이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20면 : Britain's Economy

헤드라인

번영을 위한 자유
(Freedom to thrive)

주요 공약 사항

-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적이고 건강한 경제를 창출할 것
- 영국 국민들의 국민투표의 결정에 따라서 영국의 유로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
- 과세와 지출 정책들을 좀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것으로 만들 것
- 영국 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

※ 세부공약을 개방적이고 정직한 세금, 경쟁적이고 건강한 경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 2005년 공약 헤드라인 “영국을 위한 번영 확립(Building prosperity for Britain)

- 2001년 공약에서 고용, 경제, 기업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었지만 2005년 공약은 이를 경제와 기업 파트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 목적의 이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국가 이익을 위해 무역, 투자 그리고 이주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취할 것)

2005 Liberal Democrat Manifesto

자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할 10가지 이유

WE OPPOSE	WE PROPOSE
Putting targets first	Putting patients first
Tuition fees & Top-up fees	Scrapping student fees
Compulsory I.D. cards	Spending the money on 10,000 more police
Selling your home to pay for care	Free personal care for the elderly
Ignoring climate change	Cleaner transport & cleaner energy
£1.5 billion on the child trust fund	£1.5 billion towards reducing class sizes
Means-testing pensioners	£100 extra per month starting with the over 75s
Midden tax increases	Only one tax increases - on income above £100,000 per year
Unfair Council tax	Local Income tax, saving typical households £450 per year
Bush & Blair on Iraq	Never again

© 2005년 매니페스토 역시 2001년처럼 각 이슈별로 Green Action을 제안하고 있음. 동시에 2001년과는 달리 환경 이슈를 독립한 하나의 이슈로 다루고 있기도 함 (The Environment 면의 신설)

- 2005년 The Environment에서는 “자유민주당의 Green Action에 대한 약속(The Liberal Democrat pledge for green action)”이라는 헤드라인 아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제기, 더욱 깨끗한 교통과 환경, 에너지 절약 및 핵발전소 확대 반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별첨자료2

Producing the Manifestos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정당들은 그들의 매니페스토들을 발행하고 그들의 핵심 정책들을 소개한다. 2005년 매니페스토들은 출발 단계에서 정당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의 제작은 모든 총선거에서 변화들을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정당들 모두가 그들이 매니페스토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점차 바꾸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최근의 총선 매니페스토가 제작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에 주요 매니페스토들은 길이에 있어서도 달랐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그의 양 전임자들보다 길었다. 26,000자의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2001과 비교하였을 때, 4,300자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표면상으로도 이 매니페스토는 매우 달랐다. 영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가지 않는다(Britain Forward Not Backward)라는 제목이 붙은 채 이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빨간색과 하얀색의 표지가 달린 112페이지의 작은 페이퍼 북으로 디자인되었다. 토니블레어의 5페이지 가량의 서문에 실린 그의 흑백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 그곳에는 어떠한 사진도 없었다. 그것의 길이에도 불구하고 이 매니페스토는 그것의 직접적인 전임자들 것보다 더 단순하고, 덜 번잡했다.

보수당은 매니페스토는 2001년에 비해 급격하게 짧아졌다. 그것은 무려 20,000자 정도를 줄여서 약 8,000자만을 제시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이 붙은 이 매니페스토는 28개의 A4용지 두 단으로 구성되었다. 텍스트는 Michael Howard의 사진을 포함하여 다른 그림들에 의해 보충되었다. 보수당은 또한 “행동을 위한 시간표”를 발간하였다. 그것은 더 나아간 약속들을 실행하기까지의 시한에 대한 선언과 함께 취임 후,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달 내에 충족되어야 할 보수당 정부의 직접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거의 18,000자 정도의 단어들로 구성된 자유민주당 매니페스토는 2001년과 비교하였을 때, 20% 정도로 줄었다. 진정한 대안이라 이름 붙여진 이 매니페스토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11개의 분리된 정책 영역의 섹션을 포함한 타블로이드 관형으로 제시되었다. 다른 주요 정당들의 매니페스토들과는 반대로 자유민주당의 매니페스토는 많은 그림이 들어간 매우 다채로운 문서였다.

세 주요 정당들이 어떻게 그들의 2005년 매니페스토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 MP도 후보자도 아니었지만, 2005년 그들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제작하는데 함께 했고, 그리고/또는 1997년 이후 매니페스토를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했던 각각의 정당의 대표자들을 인터뷰했다.

노동당은 역사적으로 다른 정당들에 비해 그 자신의 내적 절차에 대해 더욱 현학적이고 형식에 구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매니페스토 제작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남아있다. 현재의 과정은 당헌 5조에 의해 규정되는 일부 오래된 노동당의 실천들을 통합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각과 그림자 내각, 국가 행정 위원회, 그리고 (의회 노동당에 기반한)의회 위원회에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등한 비중을 부여했었다: 연차 총회에서 승인된 특정한 정책들을 포함해야한다는 조건과 함께. 이 과정의 주요 변화는 국가 정책 포럼(the National Policy Forum)의 창설에 있다. 그것은 정당의 모든 부분을 반영하여 정책의 주요 선언문들을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정당 회의의 승인 후에 이것들은 매니페스토의 기본을 형성하게 된다. 비록 자문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핵심적인 결정은 지도부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이는 2005년 매니페스토의 세부화된 발전에서 명백했던 것이다. 주된 행위자는 Matthew Taylor였고, 그 외에도 David Miliband, Alan Milburn, Alistair Campbell 등이 참여하였으며, 토니 블레어가 양식과 외양에 대한 최종 발언을 하였다.

2005년의 매니페니스토 그 이전의 2차례의 매니페스토가 보인 가장 주요한 차이는 “자문” 기간이 훨씬 길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서를 비평하는데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대변인들이 “긴” 캠페인 기간 동안 대중 앞에 그들의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책 내용들이 미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가 드러났을 때 그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보수당은 매니페스토를 제작하기 위해 더 확고하고, 중심으로 방향 지워진 전략을 채택했다.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멤버십을 포함하지 않아왔으며, 지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보수당 정책 포럼 즉, 이전의 보수주의 정치 센타(Conservative Political Centre)의 후신은 2001년에 재건립되었으며,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짧은 보고문들을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정당의 연구부서의 작업에 반영되었다.

지난 3번의 매니페스토에서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 취해진 접근은 매우 다양했다. 1997년 다소 전략적인 계획 또는 연구가 매니페스토의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가 혹은 그것과 어떻게 의사소통 하는가와 같은 질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2001년에 매니페스토는 특히, 지지자들을 움직이는 핵심 정책 영역을 알려준다는 면에서 핵심적 투표(core vote)를 불러오는 과정의 부분으로 보였다. 2005년은 1997년과는 매우 달랐고, 거의 그것과 반대되었다. 2005년 매니페스토의 초점은 Michael Howard가 정책방향의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고, 이것은 그것이 정당의 가치와 믿음을 따라가는 한 “what works”라는 관념에 기반하고 있었다. 캠페인 감독으로서 Lynton Crosby와 합류하기보다 Howard는 David Cameron 과 Gorege Bridges가 이끄는 작은 팀을 만들었다. 그것은 “war room”의 효과적인 명령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대중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이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깨끗한 병원”이라는 슬로건은 매니페스토가 만들어졌던 다른 의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관심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마침내 이들은 “더 많은 치안, 더 깨끗한 병원들, 더 낮은 세금, 학교 교육, 통제된 이민과 책임”이라는 6가지 주제로 굳어지게 된다. 실제 매니페스토는 따라서 요약문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만약 그 정당이 정부에 선출된다면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 정책들은 선거 전의 캠페인 기간 동안 발표되는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7개의 상세한 “작은 매니페스토”안에서 구체화된다.

자유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작성의 과정은 2004년 9월에 열린 그들의 가을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일반적 원칙을 설명하는 “pre-manifesto”와 정책 내용이 승인되었다. 이것은 연방 정책 위원회의 자문 내에서 정책 단위(policy unit)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것은 Charles Kennedy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 정당 대변인과 구성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선출된 조직체였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매니페스토를 읽기 때문에 자유 민주당은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문서화하고자 했다. 그들 역시 선거 이전 기간 동안 작은 매니페스토들을 발간했고, 이것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썩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주요 요점에 관하여 정당 내부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일부는 “진실성”은 주요 메시지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개혁과 좀더 영감적인, 가치에 기반한 접근을 선호했다. 전체적으로, “진실성”을 주장한 캠프가 승리하였다. 비록 이는 타협처럼 묘사되었지만, 그 갈등은 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Role of Manifesto in Election Campaigns

매니페스토의 일반적 기능에 관해 노동당 내부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이정당의 구성원은 매니페스토를 자문 과정의 정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당으로부터 정부로의 위임을 드러낸다. 반대로 선출된 대표들은 매니페스토를 선정된 정책적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유권자로부터 정부로의 위임이라고 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니페스토는 정당의 입법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놉시스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한다. 사실, 귀족원(the House of Lords)의 개혁과 같은 논쟁적이고 민감한 아이터들은 생략하는 것이 더 나아보일 때가 있다. 노동당은 매니페스토를 진행 중인 정책 발전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2005년 7월의 보고서는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정

당은 정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권력과의 협력의 거대한 성공을 축하해야 한다.”

보수당의 경우, 매니페스토는 정당의 정책 선언문, 핵심적 가치 그리고 의도된 행동에 대한 명백한 해설로 여겨졌다. 이는 또한 만약 정당이 선출된다면 정부가 그의 행동을 설명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수단을 제공한다.

자유 민주당은 매니페스토를 주요 캠페인 수단으로 본다. 그것은 정당의 핵심 정책들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특히,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자유 민주당의 의제에 대한 명확한 인상을 주는 한편, 후보자들과 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국가적인 강령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짧은 캠페인의 기간 동안 줄어들게 되고, 그것의 발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잘못된 시기에 소개된다면, 실패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된다.

“짧은”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매니페스토의 역할을 고려하여 노동당은 그것을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것의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며, 캠페인은 어느 경우일지라도 거의 “영원한”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그것의 핵심요지가 언론에 의해 광범위한 대중적 논쟁에 부쳐지게 되는 주요 미디어의 이벤트이다.

보수당 역시 매니페스토를 “짧은” 캠페인 기간 동안 줄어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비록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6달의 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캠페인이 현재 훨씬 길어지고 있다는데에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요 매니페스토의 요소들이 인터뷰, 언론 간담회, 그리고 선거 미팅들에서의 반복에 의해 강화되는 “이정표”이다. 이 매니페스토는 또한 정부에서 이 정당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는 전체적으로 캠페인은 실제로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이것은 매니페스토의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는 데에 세 정당이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체적으로 매니페스토들은 과거보다 “짧은” 캠페인 기간 동안 더 적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매니페스토의 출발은 단지 많은 것들 중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 그리고 이 “짧은” 캠페인 기간 내에 이미 축소된 매니페스토의 역할은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더 줄어들 뿐이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는 여전히 캠페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용을 측정하기 위한 근간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짧은 캠페인 시기에 이르게 되면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데자뷰”이다.

Wlezien과 Norris는 선거 캠페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졌으며, 투표자들에 의해 그들의 정당에 대한 견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는 정책의 요약본으로 기능한다. 그것들은 또한 미디어의 코멘트를 위한 자극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선거 분석가의 시각을 빌리자면 그것들은 각각의 선거를 지배해오던 정책들과 의제들에 대한 연구 자료의 가치 있는 원천으로 남는다.

별첨자료3

MODELLING MANDATE THEORY STATISTICALLY IN BRITAIN

순수한 형태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영국 정부는 그것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경쟁적 선거의 존재는 정부가 하는 일, 특히 결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채, 혹은 지속적인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약속을 부인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다닐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제약을 가져다준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이고, 상호 모순됨이 없는 행위 의도의 상대적으로 조화롭고 합리화된 집합이라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화된 정체 체제는 정당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구별에 있어 지속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만약 현직의 정당이 반대당에 의해 대체된다면 이러한 구별이 변화된 정당들에 반영될 것이다.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위임은 함축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이데올로기적 구별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정당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 (1) 결과들은 웨스트민스터 위임 모델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그들의 매니페스토 강조점들이나 그들의 장기적인 이데올로기적 헌신과 광범위하게 연관된다.
- (2) 그러나 정당의 강조점들과 헌신으로부터 정부 행동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영역들 사이에는 상당한 변화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영역에서 다른 많은 요인들이 이들을 방해하고, 필요없는 것으로 만든다.
- (3) 최근의 프로그램 상의 강조점들은 장기적인 정당의 헌신보다 더 중요하지만, 후자가 최근의 의제 상의 강조점들을 통제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화된 영역 역시 존재한다. 투표를 결정할 때,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최근의 강조점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과거의 행적을 지지하면서 최근의 수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 (4) 그러나 이는 노동당보다 보수당의 경우 더 사실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보수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프로그램들을 읽는 것이 최선이다. 노동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저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이다.

결론:

우리 연구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영국의 공공 지출의 우선순위는 정당의 선거 프로그램에 적혀있는 분화된 의제의 부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지배하는 정

당의 우선순위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프로그램 상의 강조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출과 관계 맺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정치학의 기술적인 부분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론 그 자체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제로 민주주의적인가와 관련된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많은 ‘국가 이론’이 주장하듯이, 비민주적 권력이 지배한다면, 만약 국가의 관료적 기구 또는 다른 ‘악의적 이해들’이 대중의 프로그램의 선택보다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지닌다고 생각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비교가능한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분석은 영국 정당은 그들의 선거 우선순위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적어도 국가 기구에는 강제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들 결과물들은 미국의 또 다른 양당 체제와 비교 가능하고, 독일과 조화를 이루며, 위임 이론의 신빙성을 높인다.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의회 체제, 대통령 체제, 연립내각 체제 사이의 입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민주주의 이론에서 위임의 요소가 요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사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입헌적 차이는 그들의 정당 체제의 기능에 있어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유사점들 보다는 정책 결정에 덜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임이론은 정당이 정책들을 발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오직 정당들이 선거에서 강조했던 것과 임기 중에 행해진 것 사이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영국 혹은 미국 투표자들이 그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들은 승리한 정당의 매니페스토 상의 강조점에서의 변화를 살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대안적인 정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은 정당의 프로그램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측면에서 다수당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영국의 입헌적 모델은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위임이론이 지시하는 바대로 그것은 정당의 행동이 선거에서의 우선순위를 따르게끔 지시한다. 노동당이 보수당보다 이를 덜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소수의 자유당이 특정 영역에서 여당인 노동당보다 지출 우선순위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영국의 엄격한 정당 위임의 운영에 있어 모순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정부 과정에의 적용가능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